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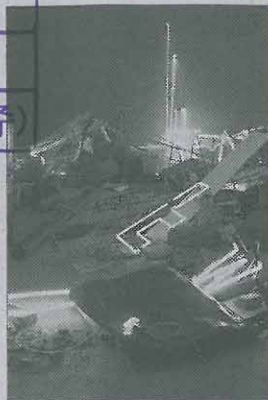


공사판 같은 작품? 국제갤러리(주) 미래 내다본 투자!

서울 종로구 소격동의 국제갤러리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알려진 화랑이다. 바젤(스위스)·피악(프랑스)·프리즈 런던(영국) 등 이른바 세계 3대 아트페어에 매년 정기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거의 유일한 국내 화랑이다. 1980년대부터 30년 가까이 탄실하게 해외시장을 닦아냈으니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국제갤러리가 요즘 도마 위에 올랐다. 실험적이고 난해한 '컨셉추얼 아트'(개념미술)로 전시관을 도배하면서부터다. 그 조짐은 올 초부터 엿보였다. 21세기 '검은 피카소'로 불리는 미국의 장미셸 바스키아(2월)를 불러들였고,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포괄하는 퍼포먼스 위주의 젊은 작가 7인전(4월)을 잇달아 소개했다. 그래도 이집트 출신 여성 작가인 가다 아메르전(5월)은 통상적인 관념의 틀은 벗어나지 않았다.

'빈디' 작업으로 유명한 인도 출신 여성 작가 바티커의 국내 첫 개인전(9월)에선 실리콘으로 만든 실물 크기 말과 나무가 등장했고, 브라질의 설치미술가 칼리토의 내한(10월) 때는 "많이 당황하셨어요"라는 안부 인사를 관람객에게 건네야 할 정도였다. 상파울루에서 배로 실어 온 육중한 전신주 9개가 갤러리 벽을 뚫고 공간을 불규칙하게 가른 탓이다. 전신주들은 수천만원을 들여 운송해 왔지만 전



시 직후 모두 폐기됐다. 이어 오토바이 바퀴 자국으로 회화 작품을 만드는 미국 작가 에런 영(11월)과 '공사판' 같은 설치미술 작품을 내건 독일 작가 안젤름 라일리의 전시(12월)는 충격을 고조시켰다. 어두운 전시장 구석에 폐차된

차체와 부서진 액자, 아크릴 유리 파편, 건축 폐자재 등으로 쌓아 올려 만든 라일리의 작품(사진)을 두고 미술기자 사이에서도 논쟁이 일었다. 풍파두센터와 리움미술관에 소장된 작품들이니 예술성이 크게 떨어지진 않는데도 말이다.

왜 이렇게 '팔리지 않는' 전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한 미술 전문가는 미술계 불황과 연관 지었다. "지금 한두 폰에 집착하기보다 통 큰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제3국 작가나 비주류 작가들에게 투자하며 시장의 흐름을 앞서 가는 게 이익이라는 계산에서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유럽에선 개념미술이 인기를 끌고 있으니, 전시를 바탕으로 해외 아트페어 시장에선 일정 부분 수익을 건질 수 있다. 최근 미국 미술잡지인 '아트앤드 옥션'이 "국내와 해외를 아우르는 대표적 등용문"이라며 이 갤러리의 대표를 세계 미술계 100인에 선정할 대목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불황이 낀 뒤 국제갤러리의 투자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